

금주의 법구-〈법구경〉  
해서는 안될 일은 행하지 말라.  
해서 안될 일을 행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87호 2016년 3월 9일 수요일

## “내려놓으란 것 조차도 놓아라”

### 4개국 불교명상 대가 담론 펼친 무차법회 열기 ‘후끈’

한국 태국 대만 호주 등 4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불교 명상 선지식이 한자리에 모여 명상을 주제로 무차법회를 펼친 ‘2016 세계명상대전’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명상대전의 하이라이트는 4명의 선지식이 초기불교와 간화선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법담을 나눈 ‘무차토론회’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 간화

는 것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것”이라며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깨달음에 대해 피력했다.

아산 간하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들려줬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걸 얻고 있는데, 남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줄 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걸 알고 나누주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하루 늦은 26일 행사장에 도착해 무차법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대만 영취산 불교교단 선원장 심도 선사는 “우리는 참선 수행의 목표를 잘 알아야 한다. 바로 열반, 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상의 공부 핵심은 무라고 말한다. 무의 경계에 들어서지 않으면 무상열반에 들 수 없다”며 “호흡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을 호흡에 두어라. 이 호흡에 안주하라. 호흡하며 알아차림을 느껴라. 몸과 어깨에서 힘을 빼며 마음을 편안히 갖고 고요함을 느껴라. 모든 세포의 힘을 느끼고 즐거움과 환희심을 느껴라”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조직위원장인 각산스님(참불선원장)은 “한국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고승이 최초로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번 행사 개최의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해발 1340m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마운틴 탑에서는 핸드프린팅 행사가 진행됐는데, 세계 고승들이 남긴 핸드프린팅 등관은 하이원리조트 하늘길 입구에 설치된 명상쉼터에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정선=김주일 기자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서원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2월 26일 김천 직지사서서 제5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임재고불식을 진행했다. 고불식에는 남행자 56명, 여행자 26명으로 총 82명이 참석했다. 수계교육 참가자들은 고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단과대로 확대

### 경찰사범대학 개편… “사회안전 교육·연구 중심” 자리매김

동국대(총장 보광)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안전 분야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동국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간부를 포함한 사회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단과대학인 경찰사범대학(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196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경찰간부 및 교수 등을 양성, 한국 사회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쌓아왔다. 50년 간 경찰간부 양성에 주력하며 형사사법기관 및 국정원, 감사원 등 꾸준히 교육영역을 확대해 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단과대학으로 개편,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동국대는 경찰사범대학이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문제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부로 개편하고, 경찰학·산업보안·범죄과학·교정학 등 4개의 세부전공을 신설했다.

경찰학 및 교정학 전공은 형사사법기관 중견간부 양성에 특화되고, 산업보안 및 범죄과학 전공은 사회안전 분야 융합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산업보안 및 범죄과학전공은 경

찰학 및 범죄학을 기반으로 통계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의학 및 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통섭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동국대는 공공안전 및 산업보안 분야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안전 전 분야에 관한 産·學·官 융합연구가 활성화되면, 본격적인 R&D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경찰사범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정원 외를 포함해 80명이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출가 동영상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 1~3분 이내 영상

“출가 진흥 원년”을 선언한 조계종이 출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출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일반인들의 참신한 생각을 반영한 동영상 발굴을 위하여 출가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가에 대한 관심과 출가를 장려하는 내용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개인, 팀 또는 단체로 참여 가능하며, 복수 제출도 허용된다. 공모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제작방법은 모든 형태의 동영상으로 파일형식 및 파일크기 제한 없으며 1~3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당선작 발표는 6월 3일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팀)에게 상금 500만원, 우수상 1명(팀)에게 상금 300만원, 장려상 2명(팀) 상금 각 100만원으로 총 상금 1,000만원이다.



공모방법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공모작을 이메일(budhadream@buddhism.or.kr)로 송부하거나 조계종 교육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02)2011-1810 신성민 기자

### 1087호 INDEX

인터뷰 4  
동국대 불교대학 첫 석좌교수  
성운 스님



시방세계 5  
삼광사 <힐링치유문화공간> 콘서트

도반의향기 14·15  
(주)마인드디자인



‘2016 세계명상대전’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서 성황리에 열렸다.

##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 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제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해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칩니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기별 지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민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